

# 광주시교육청, 5·18행사위 공식 단체 참여... '5월 정신' 구현 앞장

### 행사위 출범 30년 만에 처음 직속기관 전 간부 등 교육가족 5·18 민주묘지 참배·현열 동참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참가 단체에 가입하는 등 눈길 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교육청과 직속기관 전 간부 등 교육가족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단체 현열에 동참하는 등 5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5월 정신을 교육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5월 정신 구현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부터 25일까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3주간 5·18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 5·18행사위원회에 공식 참가 단체로 참여한다. 5·18민중항쟁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에 학생, 학부모, 교육청 직원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5·18을 구심점으로 하나되는 오월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5·18행

사위는 지난 1993년 출범한 이후 5·18전야제를 비롯한 각종 민간 주도 5·18 기념 행사를 운영해 온 민간 단체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은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간부 등 교육가족 50여 명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하면서 시작했다.

이 교육감은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학생희생자가 있는 광주효덕초(당시 4학년 전재수), 광주서광중(당시 3학년 김명숙), 광주동성고(당시 1학년 문재하, 안종필, 2학년 이성기) 3개 학교의 추모비(석)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다양한 희생자 추모 행사도 전개된다. 5·18 행불자 이창현(당시 초등학교 1학년)군 명예졸업장이 오는 17일 10시 30분 광주양동초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같은 날 10시 3명의 학생희생자가 있는 광주동성고등학교에서 '5·18정신 전극을 넘어 세계로'의 주제로 특강한다.

학교의 답을 넘어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5·18사적지 걷기 축제, 5·18청소년 문화제(5월 25일) 등의 행사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5·18교육주간을 ▲5·18교육 내실화 ▲5·18교육 전국화 ▲5·18교육 세계화를 목

표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5·18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각 학교에서 학생회가 주축이 된 5·18 기념 행사 실시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학교 당 학급 수에 따라 50~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5·18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가치와 체험 중심으로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인성교과서, 전사자료, 교육자료 '꾸러미'를 구성해 보급한다. 해당 자료들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광주와 전국 학교로 보급돼 활용된다. 광주와 전국의 학교에 보급될 5·18교육자료는 5·18 인성교과서 2,160권, 5·18전사자료 142세트, 5·18 교육자료 '꾸러미' 189상자이다.

이밖에 각 학교에서는 5·18 관련 수업과 함께 5·18 역사 왜곡 바로 알기, 사적지 답사, 글든벨, 학생 연극제 등 다채로운 활동이 실시된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활동으로 오월극, 오월 마당극, 창작 오라토리오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전체 학교에는 기념 현수막도 게시된다.

전국 교원 대상 교육자료 보급, 전국 학생 대상 '찾아오는 5·18 인문학 캠프' 등이 5·18 전국화를 위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직속기관 전 간부들이 최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참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진행되며,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한 5·18 세계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었다. 이때 광주 시민이 보여준 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에 계승되어야

하는 숭고한 정신"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광주와 시대를정신인 민주와 인권, 평화와 공동체 가치를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작은학교 특성화로 글로컬 미래교육 연다

### 전남교육청, 특색 프로그램·특성화 모델학교 운영

전남교육청이 작은학교 특성화로 글로컬 미래교육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남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과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속에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문화예술교실·협동프로그램 등 학교의 특성을 살린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해 초·중·고 280개교에서 추진된다.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작은학교의 강점을 결합시켜 학교만의 브랜드를 창조, 전남미래교육의 표준 모델로 삼아 '찾아오는 작은학교,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도 교육청은 2024년도에 목포서산초(해양안전체험 특화학교), 장성서산초(자연회복 아토피 힐링스쿨), 중동초(산수유골 영화학교) 등 특성화 모델학교 10개교를 공모 지정했다.

전남은 2024년 3월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인 여수 화양초 학생들이 해양체험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의 작은학교 비율이 전체의 47.7%(866개교 중 413개교)에 달한다. 도 교육청은 지방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지민 강한 전남형 작은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농어촌 작은학교는 전남교육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전남교육은 학생인구 감소 및 학생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의 강점을 살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글로컬 교육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웹소설 청년 작가 배출 중심지 부상

### 광주대 문창과·광주콘텐츠코리아랩 작가 양성 프로그램 돋보여

광주가 웹소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차세대 작가들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소설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젊은 웹소설 작가 및 지망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가 있다. 황제병권, 씨줄, 쪼꼬뽀 등 유명 작가들을 배출한 광주대 문예창작과는 탁월한 웹소설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가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재학생들의 활약 역시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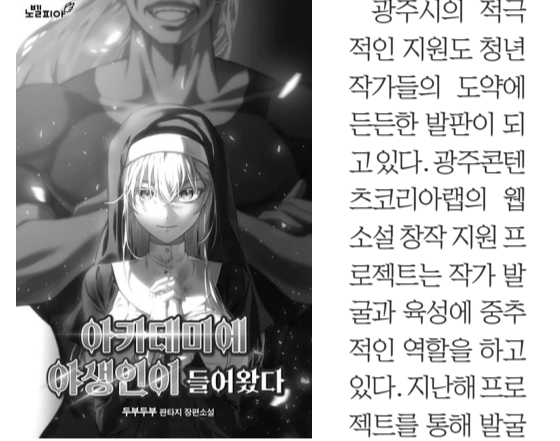
1학년 데피온 작家的 '남주 도련님의 호위입니다'는 론칭 1주일 만에 네이버 시리즈 일간 랭킹 8위에 오르며 선전했고, 3학년 두부두부 작가의 '아카데미에 아생인이 들어왔다'는 노벨피아 전체 랭

킹 50위권을 지키며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4월 EBS 지식채널e에 출연하기도 한 데피온 작가는 "수험생 시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나도 함께 활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군산에서 진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교수님들과 웹소설에 대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며 광주대 문예창작과의 장점을 강조했다.

두부두부 작가 역시 "웹소설 특성과 프로그램에 반해 다니고 있던 대학을 중퇴하고 대구에서 광주로 진학했다"면서 "수업을 통해 웹소설에 관한 식견을 넓혔고 특히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 학교 차원의 여러 지원이 무척 도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청년 작가들의 도약에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웹소설 창작 지원 프로젝트는 작가 발굴과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공화성 작가가 네이버 시리즈에 작품을 연재하는 성과를 배출했다. 올해 선정된 슈니츠 팀의 민성문 팀장은 "제주 출신인데, 웹소설 작가로서의 성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이 훌륭하다"고 호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선도연구센터-中 정저우 기초의과대학 교류 협약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형 교수)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정저우대학 기초의과대학(학장 류강동)과 연구 및 학생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형 센터장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중인 5-6일 제11회 중미 암 연구 최전선 포럼 & 제9회 정저우 국제의료포럼에서 '전통 한의 소재의 장질환에 대한 유용성(Beneficial Effects of Traditional Medicine on Gastrointestinal Diseases)'에 대해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의과학 분야 주관연구기관(MRC, Medical Research Center)으로 선정돼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난치질환에 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세미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tional Medicine on Gastrointestinal Diseases)'에 대해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의과학 분야 주관연구기관(MRC, Medical Research Center)으로 선정돼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난치질환에 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세미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갈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옥상스틸방수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건물 리모델링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